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 학자의 관점 및 평가

KIEP 북경사무소(kucho@kiep.go.kr, Tel: 86-10-8497-2870)



차 례

1. 서론
2. 중국 학자의 미국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 2.1. 전반적 평가
 - 2.2. 산업 분야
 - 2.3. 무역 분야
3. 평가 및 전망

주요 내용

- 미국 대선에 두 후보 모두 대중 강경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있지만,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임. 트럼프는 무역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반면, 해리스는 기술 경쟁과 동맹국 간의 협력을 통해 중국을 견제할 가능성이 큼.
 - 트럼프의 정책 : 트럼프는 양자 협상을 통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 관세 인상을 통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 우선' 정책을 강화할 가능성이 큼. 중국과 무역 불균형을 해결하고자 하며, 관세 인상을 통해 미국 제조업을 보호하고 대중 압박을 가중할 가능성이 높음.
 - 해리스의 정책 : 해리스는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며, 기술 및 친환경 산업 중심의 대중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 해리스는 글로벌 동맹을 강화하며 기술과 친환경 산업을 중심으로 대중국 경쟁을 이어가려 할 것이며, 무역과 외교에서 비교적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임.
- 미중 양국은 산업 및 무역 분야에서 긴장과 상호 의존성이 동시에 공존함.
 - 트럼프의 보호무역 : 트럼프는 제조업 부흥을 위해 관세 인상 및 규제 완화를 통한 무역 보호주의 정책을 강조함. 철강, 자동차, 섬유 등 노동 집약적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해리스의 친환경산업 지원 : 해리스는 기술 발전과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공정 무역을 지지하며, 신재생 에너지 및 첨단 기술 분야에 집중함. 다자간 협력과 친환경 정책은 해리스가 중국과의 무역에서 차별화된 전략을 취하는 요소가 될 것.
 - 첨단기술 경쟁: 반도체, 전기차, AI 등 첨단 기술 산업에서 양국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미국의 수출 통제와 중국의 기술 자립이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큼.
- 중국은 무역 다변화의 정책으로 미중 무역 갈등을 대응하고자 함.
 - 중국은 아세안, 멕시코 등 신흥 시장과의 무역을 강화하며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018년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가 감소하는 반면, 아세안 및 멕시코와의 무역 흑자는 꾸준히 증가했음.
 -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무역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있음.
 - 중국은 기술과 전자상거래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해외 투자를 강화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전략을 펼치고 있음.

1. 서론

■ 2024년 미국 대선은 11월 5일이며, 2025년 1월 20일 제47대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함.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카말라 해리스이며,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도널드 트럼프로 미국 대선에 대한 중국 학계에서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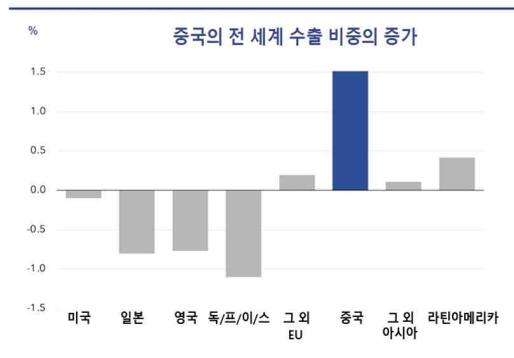
- 2024년 10월 현재 트럼프 대선 후보가 약간의 격차로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으나,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이가 크지 않고 선거인단 투표를 통해 결정되는 변수가 존재함. (그림 1 참조).
- 중국은 미국 대통령 후보 개인에 대한 선호보다 정책에 대한 선호가 있음.¹⁾
 - 국익의 차원으로 보았을 때, 중국은 핵심 이익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는 명확한 입장이 있음. 예를 들어, 중국 내정에 간섭하거나 남중국해, 대만, 티베트, 신장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한 미국 대통령 후보자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함.
 - 국제적 차원에서 보았을 때, 중국은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중국은 편을 가르치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방식으로 평화를 촉진하려 함. 평화 발전에 유리한 정책을 취하는 미국 대통령 후보자를 지지함.
- 중국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산업정책 및 무역과 관련된 수출 부문이 증가했음. (그림 2 참조).
 - 미국의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과 완화된 통화 정책으로 신흥 시장의 고정 자본 지출 수요가 증가해 건축 자재와 기계 장비의 수출이 증가했으며, 미국 주택 가구, 가전제품의 수요로 수출이 증가함.
 - 중국의 무역 흑자가 확대되고 미국의 무역 적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음.²⁾

그림 1. 미국 대선 후보 지지율 차이



주: 세로축은 지지율을 나타내며, 단위는 %임.
 자료: RCP, 申万宏源研究 (2024. 10. 10)

그림 2. 중국의 전 세계 수출 비중의 증가



주: 2017-2019년 %보다 2023-2분기~2024 1분기의 비중을 비교한 표로, 단위는 %임.
 자료: IMF (2024.9.12)

1) 「郑永年：中国对美国总统候选人有选择偏好吗?」, 『大湾区评论』(2024. 9. 10)

2) 「Trade Balances in China and the US Are Largely Driven by Domestic Macro Forces」, 『IMF』(2024. 9. 12)

2. 중국 학자의 미국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

2.1. 전반적 평가

■ 중국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대결적인 정책을 사용했으며, 바이든 행정부 시기 중국 정책의 어조는 완화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미국의 대중 전략적 전환을 강화했으며, 일부 문제에서는 트럼프 정부보다 더 강력한 정책을 취함.³⁾

-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두 후보의 중국의 정책은 비교적 명확함. 미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제한하고자 함.
- 트럼프는 양자주의에 기반한 '거래' 방식으로 중국과 협정을 체결하려 할 가능성이 크며, 해리스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대중 전략 경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트럼프 정부를 경험한 중국의 입장에서는 해리스 정부가 오히려 예측 가능성이 낮을 수 있음.
- 하지만 두 후보 모두 미중 간의 대규모의 경제 및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원하지 않음. 중국도 미국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립이나 관계 단절을 피하고자 함.

■ 트럼프는 '미국 우선' 정책을 바탕으로 보수적인 정책을 실시하며, 해리스는 '포용적 발전'의 측면에서 공정하며 개방적이고 친환경적인 국정 운영 방침을 추구함.⁴⁾

- 트럼프의 재정 및 통화 정책과 대외정책에서 핵심은 '감세와 재정 지출의 축소'이며, 중국의 최혜국 대우를 재조정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 지출을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하면서도, 기업 세율을 낮추며 개인 감세 정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음.
- 외국 상품에 대한 관세의 부과를 늘리고, 중국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함.
- 해리스는 중저소득층의 이익을 중시하며, 기업과 고소득층 세율을 인상하고, 정부의 지출을 확대하여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자 함.
- 기업의 세율을 현재 21%에서 35%로 인상하고자 하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제안한 28%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최저 임금 인상과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과 보조금 확대를 지지하며, 연방 최저 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방안을 지지함.
- 보호 무역주의를 지양하고 대외 개방을 강조함. 다자간 기구와 국제 협력을 통해 글로벌 문제를 해

3) 「Wang Jisi, Hu Ran, and Zhao Jianwei: Does China Prefer Harris or Trump? Why Chinese Strategists See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Foreign Affairs』(2024. 8. 1)

4) 「美国大选的进与远——大国博弈深度研究系列一」, 『国泰君安证券』(2024.8.5)

결하기를 바람.

■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중국 주요 정책에서는 유사성이 높으나, 일부 정책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함.⁵⁾

표 1.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중 주요 정책 비교

	공화당	민주당
대중 주요 정책	1) 무역 관세 인상 : 대외 무역 관세를 60% 인상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철회하며,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금지함. 2) 팬타닐 통제. 3) 사이버 보안 : 국가 핵심 인프라와 산업 기반을 악의적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보호 (트럼프의 중국 해커 관련 발언).	1) 무역 제한 : 중국의 불공정한 경제 행위를 지지하고,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철강, 알루미늄,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주요 광물, 태양광 전지, 항만 크레인 및 의료 제품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해 전략적으로 관세를 인상함. 2) 기술 봉쇄 : 중국에 인공지능 칩과 그 제조 장비,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기술을 수출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작은 마당에 높은 담장(small yard, high fence)" 전략을 수립함. 3) 신재생 에너지 보조금 :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은 세액 공제와 환급을 제공하면서 관련 수입을 줄이고, 국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회귀를 촉진함. 4) 팬타닐 통제. 5) 지정학적 상황 : 쿼드(Quad) 동맹과 필리핀 및 기타 동맹국과 협력하여 중국의 적대적 행동과 강압에 맞서 공동 대응.
영향을 받는 산업	모든 수출 해운업 자동차 제조업 제약업 국내 인터넷 기업	반도체 및 칩과 같은 자체 통제 가능한 하드웨어 분야 AI 및 데이터 소프트웨어 의약품 신재생 에너지 장비 전기차 및 배터리

자료: 『华鑫证券』(2024.8.24.)

- 그러나 실제로 미국의 대중 정책에 대한 목표와 실제 실행 사이에는 차이가 존재함.⁶⁾
-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는 중국에 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실제로 집권 후 부과된 대중국 관세는 25%에 그쳤음. 현재 트럼프가 목표로 하는 60% 관세 부과 계획도, 과거 사례에 비추어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음.
-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인상을 통해 무역 적자를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강화하려 했으나, 실제로 실행된 관세 조치들로 미루어볼 때,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인상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됨.

5) 「美国大选 : 特朗普交易 VS 哈里斯交易」, 『华鑫证券』(2024.8.24)

6) 「2016年与2020年美国大选如何影响市场? —— 2024年美国大选追踪系列之一」, 『光大证券』(2024. 4. 9)

■ 미국의 대중국 정책이 지난 8년 동안의 기초를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됨.

- 칭화대학교 순청하오(孙成昊) 연구원은 단기적으로나 장기적으로나 미중간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봄.⁷⁾
 - 단기적으로는 미국 대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미중 관계가 현재의 상대적 안정세를 유지할 전망이다. 대선 전후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 간의 현상 유지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대선 결과에 따라 미중 관계는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양국 간 정책적 대응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 경쟁의 추세가 바뀌기 어려우며, 대중국 문제에 대해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우크라이나 위기를 신속히 종결시키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집중해 중국의 발전을 견제하려 할 것임. 반대로 해리스의 경우에 집권 초반 1-2년 동안은 바이든의 정책 방향을 대체로 이어갈 것이며, 미국과 동맹국과 함께 대중국 경쟁을 계속할 것임.
- 푸단대학교 우신보(吴心伯)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경제무역 정책에 대해 미국 재계가 실망감을 표명한 바 있다고 지적함. 중국의 외국인 투자 유치, 대외 무역 안정화, 시장 활력 제고 등 높은 수준의 개방 정책이 미국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유지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강조함.⁸⁾
 - 미중 경제무역 관계에서 앞으로의 방향은 중국의 입장에 따라 더 달라질 수 있음. 미국 입장에서는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국가 안보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 반면 중국의 경우 개혁과 개방을 확대하고자 하므로 미국 기업은 중국의 시장에서 기회가 있다고 여길 가능성이 높음.
 - 장기적으로 미중 경제무역 관계는 낙관적인 전망을 보임. 중국의 지속적인 경제 발전과 거대한 시장, 그리고 개방 정책은 여전히 미국 기업에게 매력적임.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강화하더라도 미국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울 것임. 이는 양국 간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함.
- 중국 전문가인 워싱턴 대학교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 교수는 이전의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모두 비교적 일관된 대중국 정책을 펼쳤다고 봄.⁹⁾
 - 외교, 정치, 군사, 안보,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대중국 정책의 지속성이 높음.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는 트럼프 행정부와 대중국 정책에 차이가 있을 것이며, 협력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기도 했음. 실제로는 협력보다는 전면적인 경쟁이 지속되어 왔으며, 양국 간 긴장 관계는 오히려 강화되었음. 이는 대중국 정책이 미국의 초당적 합의 아래 장기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바이든 행정부에 비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리들은 중국에 대한 비판적인 발언을 더 자주 했으며, 공개적으로 트럼프 정부가 중국을 여러 차례 비난했음. 바이든 정부는 해외 동맹을 강화하고 대중국 반대 동맹을 구축하며, 기술, 교육, 연구 인프라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해 중국과의 경쟁력을

7) 「孙成昊:中美关系尚未进入“垃圾时间”」, 『中美聚焦』(2024. 10. 1)

8) 「吴心伯:专访复旦大学美国研究中心主任吴心伯:今年美国大选的不确定性体现在三个方面」, 『第一财经』(2024. 8. 8)

9) 「David Shambaugh: Speculating About Trump vs. Harris China Policies」, 『中美聚焦』(2024. 8. 7)

높이고자 함.

-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무역 정책에 있어 첫 번째 임기보다 더 급진적일 것이며, 해리스의 경우 부통령 시기 대중국 정책을 직접 다루지 않았고 실제로 아시아는 방문했으나 중국을 방문한 적은 없음. 해리스는 미국-인도 파트너십 강화를 기여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중요도가 강화될 수 있음.

2.2. 산업 분야

- 미국의 주요 경제 및 제조업 부흥 정책은 오바마 정부 이후 기술 집약적인 산업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반도체) 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 추세가 더 강화되었음. 따라서 산업 분야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의 결과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의 산업 정책의 추세를 통해 분석할 수 있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찾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제조업이 재조명되었으며, 오바마 정부는 2009년부터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을 실행함.
 - 중국사회과학원 귀사(郭霞)·파오광지(朴光姬) 연구원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적극적인 자동차 산업을 지원했으며, R&D정책을 통해 기술 혁신을 주도했음을 연구함.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를 통해 전기차 혁신 발전을 10대 산업 중 하나로 명확히 규정함.¹⁰⁾
 - 오바마 행정부의 자동차 산업 정책에서 중국의 참고사항으로는 ①정부의 경제 기능은 확장되었으나, 시장을 대체하려는 의도는 없는 산업정책과 시장의 경계가 비교적 명확했음. ② 자동차 산업 지원 정책은 법률 및 규정을 기반으로 하였음. ③ 혁신과 연구 개발을 중시함. 정부와 산업, 학계가 함께 혁신을 촉진하는 것이 중요함.
 - 중국사회과학원 황취후이(黄群慧)와 허쥘(贺俊) 연구원은 중국 제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선진 산업 국가의 산업화 과정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고유의 산업 기반, 인적 자원, 시장 수요 및 문화적 특성을 기반으로 고유한 제조 핵심 능력을 구축해야 함을 강조함.¹¹⁾
 - 미국의 핵심 역량은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비교적 복잡한 상품의 설계 개발 능력에 있다고 봄. 반면 중국은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方谈话) 후 성장한 세대의 기업가 대부분이 기술 엘리트의 배경이 없으며, 획기적인 혁신과 장인 정신의 부족으로 제조업 발전에 한계를 보였음.
 - 《중국제조2025(中国制造2025)》는 중국 제조업을 새롭게 인식하여 중국 경제사회발전의 중요한 전략적인 의의가 있음.

10) 「郭霞, 朴光姬: 适时介入, 市场重塑与协同创新——奥巴马政府的汽车产业政策分析」,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2016)

11) 「黄群慧, 贺俊: 中国制造业的核心能力, 功能定位与发展战略——兼评《中国制造2025》」, 『中国工业经济』(2015)

표 2.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정부 시기 기술 집약적 산업에 대한 정책

오바마 정부 시기 (2009-2017)	트럼프 정부 시기 (2017-2021)	바이든 정부 시기 (2021-현재)
<p>1. 《미국 경제회복 및 재투자법(American Recovery and Reinvestment Act)》(2009년) 고용 회복과 실업률 감소를 위해 총 8,310억 달러를 투자하며, 주요 재생에너지자원, 청정에너지기술, 자동차와 연료기술 발전 등의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위한 법안.</p> <p>2.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한 기틀(A Framework for Revitalizing American Manufacturing)》(2009년) 미국 제조업의 전략적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통해 미국이 제조업 부흥의 우선순위 설정 및 전략적 목표 수립.</p> <p>3. 《국가 첨단 제조업 전략계획(National Strategic Plan for Advanced Manufacturing)》(2012년) 첨단 제조 R&D 분야에서의 5대 목표를 제시함. 정부가 연구와 기술에 투자하여 새로운 산업의 창출을 추구함.</p>	<p>1. 《세금 감면 및 일자리법(Tax Cuts and Jobs Act of 2017)》(2017년) 법인세를 35%에서 21%로 인하하여 기업의 자본투자의 비용을 줄이고 미국 기업들이 본국으로 이전하도록 함.</p> <p>2. 《미국산을 사고 미국인을 고용하자(Buy American, Hire American)》행정명령(2017년) 미국산 제품 구입을 장려하며 일자리 창출 정책을 강조함.</p> <p>3.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EXICO-CANADA Agreement:USMCA)》(2018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하여 북미 제조업 공장을 강화하며, 자동차 생산 시에 북미에서 제작된 부품을 사용해야 함.</p>	<p>1. 《미국 근로자가 미국에서 제조하도록 보장하는 행정명령(Ensuring the Future Is Made in All of America by All of America's Workers)》(2021년) 미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여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고 새로운 기술 혁신 시장을 확장하려는 목표.</p> <p>2. 《공급망 탄력성 평가(America's Supply Chains)》(2021년) 미국의 반도체, 배터리, 희소광물, 의약품 등을 포함한 4개의 주요 분야에서 공급망의 탄력성을 평가하며, 미국 내 제조를 강화하고 외부 의존도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p> <p>3. 《반도체와 과학법(The CHIPS and Science Act)》(2022년) 미국 반도체 연구 및 생산에 약 520억 달러의 정부 보조금을 제공하여 반도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p>

자료: 国泰君安证券(2024. 8. 5) 내용 재정리

■ 트럼프 정부는 미국 내 산업 간 발전의 불균형과 무역 적자가 관세 부과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트럼프는 자유무역 자체를 경제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보고,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간주하며, 대중국 무역 제재를 관세 위주로 진행했음.¹²⁾

- 1980년대 이후 미국의 산업 발전 초점은 점차 서비스업으로 이동하여, 제조업의 성장은 정체 상태로 빠짐.
-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 재협상을 시사했으며, 멕시코산 중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12) 「面对特朗普, 出口会怎样? ——美国大选背景下的出口全景展望」, 『财通证券』(2024. 7. 24)

높이는 방식으로 협상 가능성이 높음.

- 전체적으로 미중 양국의 관세는 약 20% 인상되었으며, 산업별로 기계, 섬유, 전자 산업에서 큰 규모로 적용되었으며, 이 산업은 대중국 의존도가 높았음.

■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 시절 부과된 일부 관세를 철회했으나, 대중국 관세는 해당 되지 않았음. 새로운 국제 경제 협력 체제를 통해서 공급망의 취약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 바이든 정부의 산업정책에서 반도체와 관련된 산업 정책을 강화했으나, 세수 정책의 강화와 산업의 발전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나타났음.
 -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은 반도체, 자동차, 기술 산업에 단기적인 악재로 영향을 줄 수 있음. 자본이득세 세율의 인상은 미국 증시에 부정적인 충격을 주었는데, 2021년 바이든 대통령은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자본이득세 세율을 20%에서 39.6%로 두 배 인상을 제안했으며, 미국 증시에 영향을 받음. 미국 기술주 투자자들은 자본이득이 많은 집단으로, 기술주가 한 달 내 큰 폭으로 조정된 사례가 있음.¹³⁾
 - 2021년 10월 바이든은 낮은 기업세율을 제안하여, 반도체, 자동차, 기술 산업이 다시 강세로 보임.
- 바이든 정부는 비관세 무역 수단을 통해 중국의 첨단 기술 산업의 발전을 제한하고자 함.
 - 수출 통제와 투자 제한을 중심으로, 중국에 반도체, 통신 등 첨단기술산업 발전을 억제하고자 함.

표 3. 트럼프와 해리스의 산업 정책 비교

		트럼프	해리스
산업 정책	제조업	미국 제조업의 재활성화 외부 공급망 의존의 감소 추진 법인세율 21%에서 15%로 인하	첨단 제조업 세액 공제 지원
	에너지 정책	석유, 천연가스의 생산 촉진 파리 협정 재탈퇴 석유 공급을 늘려 인플레이션을 완화.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 개발 강화 화석 연료 의존 감소
	AI	AI의 규제 완화를 주장하며, 인공지능 고기술 발전을 지지함. 정부의 보조금 또는 투자 정책은 아직 없음.	2023년 바이든 행정부의 "안심할 수 있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개발과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지지. 바이든에 비해 규제 제정에 대한 언급은 적지만, 최근 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태도를 보임.

자료: 德邦証券(2024. 10. 18) 내용 재정리

13) 「2016年与2020年美国大选如何影响市场? ——2024年美国大选追踪系列之一」, 『光大証券』(2024. 4. 9)

■ 트럼프와 해리스의 산업정책은 제조업, 에너지 정책, AI의 측면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음.

- 산업정책의 측면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으며, 해리스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중립적임.¹⁴⁾
 - 바이든 정부 기간 제조업의 지출이 증가한 상황에서, 트럼프 집권 시 중국 경쟁 제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경우 바이든 정책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음. 미국의 첨단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업의 자국화의 속도를 가속화 할 가능성도 있음.
 - 트럼프의 이민 제한 및 추방 조치는 미국 노동 시장의 비용 상승을 초래하고, 제조업 인건비를 증가시켜 자국 제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규제를 철회하고,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인 석유 시추 활동을 늘릴 것으로 예상됨.
 - AI규제 법안 제정에 대해 해리스는 바이든 정부 시기 이를 중요하게 촉구했으나, AI와 관련된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것을 지지함.
 - 해리스는 트럼프에 비해 대규모 관세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낮으며,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을 줄이는 요인이 될 것.
 - 보조금 정책은 재정 확장 정책으로, 다소의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는 있으나 공화당만큼 강경하지 않은 이민정책으로 노동력 공급이 늘어날 수 있음.
- 미국 에너지 산업의 발전에서 미국 대통령의 정책 성향이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음. 오히려 거시 경제 요인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함.¹⁵⁾
 - 미국은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미국 셰일 가스의 생산 방식에서 수압 파쇄법이 도입됨에 따라, 미국 셰일 가스 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해 에너지 공급국으로 전하게 됨. 이후 트럼프 취임 이후 미국 원유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 코로나19 이후 원유 가격의 감소로 생산이 감소함.
 - 바이든 취임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게 됨.
 - 미국의 원유 수입 의존도는 감소하였으나, 자급자족 방식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는 미국의 정유 공장이 증질유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증질유를 정유 제품으로 가공하여 수출함으로써 이윤을 창출하고 있음. 반면, 미국에서 생산되는 셰일 가스는 경질유로, 다양한 제품으로의 가공에 제한이 있음.
 - 모든 에너지를 재생 가능 에너지로 전환하지 않는 이상, 미국의 에너지 독립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2.3. 무역 분야

14) 「美国大选展望——民调视角和投资锚点」, 『德邦证券』(2024. 10. 18)

15) 「美国大选的近与远——大国博弈深度研究系列一」, 『国泰君安证券』(2024. 8. 5)

■ 중국의 거시 경제에서 미국 대선이 가져올 최대의 변수는 “관세와 무역 보호 정책”으로,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정책이 중국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중요함. 또한 관세의 급격한 인상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에서 크게 변화하지 않았음.

- 무역 분야에서 트럼프는 비교적 명확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해리스는 자유 무역을 지지하며 공정 무역을 강조하지만, 무역 정책을 통해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서 균형을 잡으려 함.
- 트럼프 취임 이후 관세의 급격한 인상은 글로벌 자유무역 시스템을 흔들었으며, 코로나19와 지정학적 갈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의 증가는 무역 보호주의를 강화시켰음.
-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주의와 경제적인 강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을 방해했으며, 바이든 정부는 보호주의 정책을 조정하지 않아 세계 경제의 분열을 더욱 악화시켰음. 16)

■ 미중 무역 충돌 이후에도 미국의 수입과 수출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각각 16%와 12%를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의 수출이 미국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전히 10%를 초과함. 17)

- 미중 간 무역의 가치사슬 재구성 과정에서 노동 집약적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관세 측면에서 볼 때, 기술 집약적 제조업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높지만, 관세에 따른 무역 대체 탄력성을 고려하면 기술 장벽이 낮은 제조업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저기술의 제조업의 경우 낮은 노동 생산 비용에 더 많이 의존하여, 글로벌 공급망에서 보면 더 높은 대체 가능성이 있음. 따라서 중국에 대한 관세 비율이 높아질 경우, 공급망을 동남아시아, 멕시코 등 기타 신흥 시장으로 옮길 수 있음.
- 첨단 기술을 요구하는 산업의 경우, 기술의 복잡성으로 인해 단기간에 완전히 대체하는 데 한계가 존재함. 이에 따라, 첨단 기술 산업은 미중 무역 마찰 상황에서도 일정 수준의 시장 협상력을 유지할 수 있음.

■ 중국 기업들은 관세를 인상하기 전 미국으로의 수출을 가속화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장기적으로는 ‘일대일로’의 방식으로 국가들과 연계를 강화하며, 신흥 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처해왔음.

- 미중 무역 분쟁은 중국이 다른 시장에서의 수출 비중을 확대하는 촉진 역할을 했으며, 중국은 새로운 시장을 발굴하고 다변화하려는 전략으로 신흥 시장과의 관계를 강화해왔음.
-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아프리카, 러시아,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 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함.
- 중국은 “일대일로” 국가들과의 경제 무역 협력을 심화해 왔으며, 일대일로를 통해 인프라, 무역 등

16) 「Dan Steinbock : U.S. 2024 Presidential Race Is Paving the Way to a Calamitous Trade War」, 『中美聚焦』(2024. 10. 11)

17) 「美国大选的近与远——大国博弈深度研究系列一」, 『国泰君安证券』(2024. 8. 5)

다방면에서 전방위적인 연계성을 증진시켰음. 2023년을 기준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참여국가와의 무역 총액은 19조 4,70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2.8%증가했으며, 이는 중국 전체 무역 총액의 46.6%를 차지함.

- 중국과 아프리카 신흥 시장에 대한 투자와 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여왔음.
- 2020년에 비해 2021년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는 전년 대비 18% 증가했음. 중국은 15년 연속 아프리카 최대 무역 파트너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음.
- 중국의 아프리카 직접 투자는 건설업,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투자 분야를 과학기술, 전자상거래 등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인구 증가와 신흥 시장의 발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여, 중국의 아프리카 수출의 상품을 고품질로 성장시키기 위한 전략임.

3. 평가 및 전망

■ 중국 학자는 미국 대선에 대해서 트럼프의 거래를 통한 합의 가능성이 존재하며, 해리스의 경우 중국에 대한 입장은 바이든 행정부와 유사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미국의 대중 강경 정책의 기초에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임.

- 베이징대학교 자칭궈(贾庆国)교수는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미중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며, 바이든보다 강경하고 ‘무원칙적’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음. 중국은 도덕적 기준을 지키면서도 반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함을 강조함. 18)
- 인민대학교 다오다밍(刁大明) 교수는 2024년 대선이 대중국 전략 경쟁의 기본 방향과 근본적인 태도를 바꾸지 않을 것이며, 중국도 미국에 대한 입장도 변화하지 않을 것이라 밝힘. 중국은 실용적인 입장으로 양국 관계를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책임있는 태도로 유지해 왔음. 19)

■ 미중 간 무역 마찰은 중국이 신흥 시장과의 연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장기적으로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일대일로' 참여 국가, 아세안, 및 멕시코로 점차 이동할 것으로 전망됨.

- 중국은 추후 미국과의 직접적인 무역 의존도를 줄이고, 중계 무역을 통해 대체 시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강화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앞으로 미국의 대선 이후에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2018년 이후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40% 이하의 비중으로 떨어졌으며, 아세안과 멕시코와의 무역 흑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각각 23%와 8%로 증가 추세를 보였음.

18) 「贾庆国：中美关系走向和美国2024年大选」, 『中没印象』(2024. 3. 9)

19) 「刁大明2024年美国大选与中美关系」, 『国际论坛』(2024)

■ 패권의 주기성으로 보았을 때, 미국의 패권의 변화에 장기적인 과정 속에 미중 관계를 보아야 함.

- 인민대학교 리웨이(李巍)교수는 미국의 패권을 ‘중년 위기’로 보고 있으며, 새로운 상황에서 스스로 조정하는 단계로 볼 수 있음. 미국 대선의 두 후보가 미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아있음. 20)
-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하며 국제적 책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을 갖지 못했음. 이로 인해 전 세계의 지지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마찬가지로, 오늘날 중국이 ‘일대일로’를 구상했으나 이를 지지하지 않는 국가들이 있는 것은 정상적인 현상이며, 중국은 이러한 ‘성장통’을 자신감 있고 침착하게 극복해야 할 필요가 있음.
- 미국은 최근 몇 년간 전략적 초점을 중동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이동하여,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고 있음. 미국의 문제는 양당이 대립하고 있는데 있으며, 양당이 유일하게 합의할 수 있는 것이 ‘중국 위협’이므로, 중국을 겨냥한 경쟁의 전략 수립을 통해 미국 내부의 분열을 조절함.
- 미국은 제조업 부흥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산업 정책적인 성격을 띠고 있음. 따라서, 미국이 《중국제조2025(中国制造 2025)》에 대해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음. **KIEP**

20) 「李巍：美国霸权正面临着“中年危机”」, 『经济外交学人』(2024. 10. 23)

[참고자료]

1. 중문 참고자료

- 「刁大明:2024年美国大选与中美关系」. 2024. 『国际论坛』.
- 「郭霞, 朴光姬 :适时介入、市场重塑与协同创新——奥巴马政府的汽车产业政策分析」. 2016. 『北京工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 「贾庆国 :中美关系走向和美国2024年大选」. 2024. 『中社印象』(3. 9).
- 「李巍 :美国霸权正面临着“中年危机”」. 2024. 『经济外交学人』(10. 23).
- 「孙成昊:中美关系尚未进入“垃圾时间”」. 2024. 『中美聚焦』(10. 1).
- 「吴心伯:专访复旦大学美国研究中心主任吴心伯:今年美国大选的不确定性体现在三个方面」. 2024. 『第一财经』(8. 8).
- 「郑永年:中国对美国总统候选人有选择偏好吗?」. 2024. 『大湾区评论』(9. 10).
- 「黄群慧, 贺俊 : 中国制造业的核心能力、功能定位与发展战略——兼评《中国制造2025》」. 2015. 『中国工业经济』.
- 「2016年与2020年美国大选如何影响市场?——2024年美国大选追踪系列之一」. 2024. 『光大证券』(4. 9).
- 「面对特朗普,出口会怎样?——美国大选背景下的出口全景展望」. 2024. 『财通证券』(7. 24).
- 「美国大选的近与远——大国博弈深度研究系列一」. 2024. 『国泰君安证券』(8. 5).
- 「美国大选展望——民调视角和投资锚点」. 2024. 『德邦证券』(10. 18).
- 「美国大选“全解”:政策比较、宏观经济与资产含义」. 2024. 『申万宏源宏观』(10. 10).

2. 영문 참고자료

- 「David Shambaugh: Speculating About Trump vs. Harris China Policies」. 2024. 『中美聚焦』(8. 7).
- 「Dan Steinbock:U.S. 2024 Presidential Race Is Paving the Way to a Calamitous Trade War」. 2024. 『中美聚焦』(10. 11).
- 「Trade Balances in China and the US Are Largely Driven by Domestic Macro Forces」. 2024. 『IMF』(9. 12).

「Wang Jisi, Hu Ran, and Zhao Jianwei: Does China Prefer Harris or Trump? Why Chinese Strategists See Little Difference Between the Two」. 2024. 『Foreign Affairs』(8. 1).

자료 정리: 베이징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국제정치경제 박사과정 신지선
(aurajiseon@gmail.com)